

외동아이 잘 키우는 육아법

(MC)

안녕하세요 한국워킹맘연구소 이화진입니다.

일가정 양립을 위한 전략을 알려주는 4번째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는 외동아이와 다자녀 아이 잘 키우는 노하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역시 한국워킹맘연구소 이수연 소장님 나오셨습니다.

어서오세요 소장님.

(이수연)

네 안녕하세요. 한국워킹맘연구소 이수연 소장입니다.

(MC)

이상하게 외동으로 자랐다고 하면 왠지 이기적일 것 같고, 욕심도 많을 것 같은 부정적인 선입견이 먼저 떠오릅니다. 저 역시 아이가 한 명이라 이런 걱정을 안할 수가 없는데요 아마도 형제 자매와 함께 자라면서 자연스럽게 배우게 되는 배려나 기다림, 사회성 등을 배우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생각 때문일 것 같습니다.

(이수연)

네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 주변에서는 최소 둘은 있어야 된다고들 얘기하지요.

하지만 요즘은 맞벌이 부부가 늘고 있고 한 명 키우기도 힘들 정도로 엄청난 양육비 부담 등으로 인해 외동 아이를 원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실제 제 주변에도 외동 아이를 키우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외동 아이 키우기’.

누군가는 애가 한 명이라 손이 덜 가 좋겠다 라고 말하지만 외동 아이를 키우는 엄마들의 고민 또한 만만치 않습니다.

‘외롭지는 않을지, 오냐 오냐 커서 독불장군처럼 되지는 않을지, 사회성이 부족하지는 않을지..’ 이래저래 걱정이 많습니다.

더불어 혼자 놀고 있는 아이를 보고 있노라면 애한테 친구 같은 형제, 자매를 만들어주지 못한 것이 미안하고 가슴도 아프기도 하지요.

(MC)

네 사실 저도 아이가 혼자 놀 때면 가끔 미안하기도 하더라고요.

(이수연)

하지만 많은 전문가들은 외동은 단점 못지않게 장점이 많으며 부모가 제대로만 키우면 외동이라고 문제될 것이 없다고 이야기 합니다.

워싱턴 포스트지의 연구 결과 역시 외동 아이들은 형제 자매들과 자란 아이들보다 훨씬 지능이 높고 성취 동기가 뛰어나며 정서발달이나 사회성 발달에 있어서도 큰 문제가 없다고 말합니다.

원만한 가정에서 자란 외동아이는 부모의 모델링을 통해 형제가 있는 또래보다 어른스럽고 다른 형제에게 자기 자리를 빼앗기거나 동생들과 부모의 사랑을 놓고 경쟁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정서적으로 안정된 상태에서 성장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일대일로 지적자극을 받을 기회가 많아 자아개념이나 지적 호기심이 뛰어납니다.

엄마, 아빠와 늘 밀접한 관계 속에 있어 의존적인 면은있지만, 자기주장이 분명하고 성취도면에서도 뛰어난 능력을 발휘하기도 합니다.

### (MC)

하지만 아이가 한 명이다 보니 아무래도 모든 신경이 아이에게로 쏠리게 되고,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해주고 싶고, 조금 버릇없게 굴어도 마냥 예뻐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다보면 부모가 우려한 나만 아는 이기적이고 독불장군 같은 아이가 되기 쉬운데요 형제가 많은 아이들처럼 성격 좋고, 너그러운 아이로 키우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수연)

**첫째, 안되는 것은 과감히“NO!”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외동을 키우는 많은 부모들은 아이가 상처받는 것이 두려워 모든 것을 허용해주려는 경향이 있는데 그렇게 집안에서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에 익숙해진 아이는 공동생활을 시작하게 되면 남을 배려하고 양보하는 것이나 규칙에 적응하지 못해 스트레스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평생 혼자 살게 할 것 아니면 아이에게 자율성을 주되 적절한 통제와 함께 안되는것은 과감하게 안 된다고 말해야 합니다.

**둘째 또래 아이들과 어울릴 수 있는 기회를 만드는것입니다.**

외동아이들은 주로 어른들에게 둘러싸여있기 때문에 또래아이들과 어울릴 기회가 많지않습니다. 그러다보면 ‘어른들이어떻게하면 좋아하고 싫어하는지’는 잘 파악하면서 정작 또래 아이들을 만났을때는 어떻게해야될지 몰라 어울리지 못하는 일이 생길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보내 또래집단을 경험하게 하거나

자주 친척집에 데리고 가 사촌동생이나 사촌형들과 어울리게 하는 것도 좋습니다.

(MC)

사촌이 멀리 있다면 이웃과 친해지는것도 좋겠네요.

(이수연)

네그렇죠. 친하게지내는 이웃이 있다면 함께 놀이계획을세워 주말에놀러다니며 자연스럽게사회성을키워주는것도좋은방법입니다.

이때처음에는또래관계가익숙하지않아서로싸우기도많이하고, 맞거나내물건을 빼앗겨울기도하지만 그때마다 엄마가나서서 중재하려하거나 흥분해서는안됩니다. 타협하는법이나갈등을해결하는방법등을가르쳐주고꾸준히연습시켜원만한대인관계를가질수있도록도와줘야됩니다.

(MC) 또 어떤 방법들이있을까요?

(이수연)

무엇이든 직접 해보게하는겁니다.

어릴때부터 뭐든 대신해주다보니 나중에는 일상생활에서 혼자해야하는 것조차 하지 못하거나 아예안하려고 하는 경우가있습니다. 자칫 하나부터 열까지 엄마가없으면 아무것도 하지못하는 의존적인아이로 자랄수있으므로 가급적 아이가 혼자할수있는 기회를많이 마련해주고 ‘넌아직어려서엄마가해줘야해’라는 생각대신 ‘너는할수있어’라는믿음으로아이를응원하고격려해주는자세가필요합니다. 또한 서툴더라도 능숙해질때까지 기다려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MC)

맞아요! 혼자있다보니 예뻐서도그렇고 또안쓰럽기도해서 옆에서 다 해주게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제는 혼자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줘야겠네요..

(이수연)

네꼭스스로할수있는기회를많이줘보세요.

아이는분명독립적인아이로자랄겁니다.

다음으로유념하셔야할것은세상은만만하지않다는것을가르치는겁니다.

하나 밖에 없는 아이다 보니 언제나 ‘물가에 내 놓은 아이’ 처럼 보여 아이의 행동 하나하나를 예의주시하며 지켜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아이가 조금만 위험한 행동을 하려 해도 바로 “안돼!” 하며 제지하게 되죠. 이런 엄마 밑에서 자란 아이는 ‘세상은 위험한 곳’ 이라는 생각을 은연중에 갖게 되고 위험을 두려워하며 무언가를 탐구하거나 시도하지 못하는 아이로 자라게 됩니다. 물론 소극적이 되어 사회성도 부족해집니다. 그러므로 가급적 아이가

하고자 하는 것은 크게 위험하지만 았다면 맘껏 해보도록 하고 그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실패를 경험하고 세상이 그리 만만하지 았다는 것을 알게끔 하는 것이 좋습니다.

(MC)

네정말그런것같아요.

(이수연)여기부터~

마지막으로 부모 위상은 명확히 가르치는 것입니다.

형제나자매가없기 때문에 자칫부모가 그역할을 대신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친구 같은 부모가 좋은점도있지만 독이될수도있다는 것을 명심하고 부모로서의 위상은 명확히 가르치는 것이 좋습니다. 부모의 자리는 스스로 지키고 그 역할을 다했을 때 비로서 빛이 난다는 것을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MC)

외동아이도 여러 사람을 만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고 혼자 자립할 수 있는 기회를 주면 건강하게 잘 자랄 수 있다는 말씀 해주셨는데요. 그렇다고 다둥이 즉 형제, 자매, 남매가 있는 분들은 어떻게 키워야 할까요?

여기에도 물론 노하우들이 있겠지요?

(이수연)

전문가들은 형제, 자매, 남매 유형별로 키우는 육아 원칙이 달라져야 한다고 이야기 합니다. 먼저 형제 잘 키우는 노하우입니다.

(MC)

소장님도 아들만 둘 키우시죠?

(이수연)

네 그렇습니다. 저도 아들만 둘인지라 집에 바람 잘날이 없지요.

아들들만 있는 집은 엄마가 ‘깡패’가 된다는 말이 있듯이 활동적인 성향 때문에 조용할 날이 없죠. 특히면 싸우고, 노는 건지 싸우는 건지 구분이 안 될 정도로 거칠며 이리 뛰고 저리 뛰어다니며 사고를 치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이는 너무도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오히려 형제들이 너무나 얹전해서 키우기 수월하다면 그게 더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MC)

아~ 그럴 수도 있겠네요.

(이수연)

형제들은 가장 좋은 친구이면서 영원한 라이벌 관계입니다.

보통 형은 동생을 지배하려 들고, 본능적으로 동생에게 절대 져서는 안 된다는 경쟁의식을 갖는 반면 동생은 힘이 센 형에게 복종하고 형을 닮고 싶어하면서도 형이 빈틈만 보이면 이기려고 덤비게 되죠. 그러다 보니 사사건건 싸우게 되고 집안에서 큰소리가 끊이지 않게 됩니다.

부모는 똑같이 사랑한다고 하지만 각자 위치에서 느끼는 정도에는 차이가 있기 마련입니다. 부모의 사랑을 더 차지하기 위해 형제간에 나타나는 심리적 갈등이나 적대감, 경쟁력을 ‘카인 콤플렉스’라고 하는데 부모가 어떻게 형제를 대하느냐에 따라 카인 콤플렉스가 더 심해지며 상처로 남을 수도 있고, 긍정적인 에너지로 전환 돼 발전의 자양분이 될 수도 있습니다.

(MC)

아~ 카인 콤플렉스요. 많이 들어본 것 같습니다. 그럼 이 콤플렉스가 좋은 쪽으로 발전하려면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이수연)

카인 콤플렉스가 좋은 쪽으로 발전하려면 무엇보다 부모가 비교와 편애를 하지 않아야 합니다.

특히 동생이 형보다 잘하는 것이 있다고 하더라도 형 있는 앞에서 대 놓고 칭찬하거나 동생만 치켜세워주는 것은 동생에 대한 형의 적대심을 키워 둘의 사이를 나쁘게 하므로 가급적 서로 잘하는 것을 칭찬해주고, 무의식 중으로라도 “누가 더 빨리 먹나 보자” 라든가 “너는 동생만도 못하니” “동생 좀 닮아봐라” 하는 등의 말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형제를 키울 때 반드시 지켜야 할 원칙은 위계질서를 만들어주되 ‘양보’와 ‘복종’을 강요하지 않는 것이다. 호칭을 비롯하여 형에게 권위를 부여하는 것은 좋으나 그렇다고 형에게는 ‘동생’ 이니까 양보하라고 하고, 동생에게는 ‘형’ 이니까 대들지 말고 무조건 말을 잘 들으라고 하는 것은 두 아이 모두에게 상처와 스트레스를 줄 수 있습니다.

싸워 혼을 낼 때도 둘 중 한 명만 혼을 내는 것도 주의해야 한다. 보통 울거나 더 크게 반응을 보이는 아이 편을 들게 되는데 “너는 형이 돼서 동생을 때리면 어떡하니?” 하며 형만 다그치거나 “조그만 한 게 어디서 형한테 대들어?” 라며 동생을 나무라는 것은 금물로 두 아이 모두에게 싸운 이유를 들어본 후 똑같이 주의를 줘야 합니다.

형제를 키우다 보면 말보다 몸이 먼저 나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물론 싸우는 과정을 통해 양보하거나 타협하는 것을 배우기도 하지만 주먹을 휘두르거나 발로 차는 등의 폭력적인 싸움을 절대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평소에 ‘폭력 쓰지 않기’ ‘욕하지 않기’ 등의 규칙 등을 정하고 만약 이를 어겼을 경우에는 어떤 벌을 받을지 함께 의논해 만들어 두는 것이 좋습니다.

(MC)

**아들을 키우면 왜 자주 목소리가 커지게 될까요?**

(이수연)

아들만 키우는 엄마들의 목소리가 점점 커지는 이유는 아무리 목이 터져라 소리를 쳐도 그 때뿐이거나 별만 반응이 없기 때문인데요 그도 그럴 것이 아들들은 엄마들이 무작정 화를 내면 왜, 무엇 때문에 화를 내는지 모르기 때문에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아들들은 엄마가 화를 내는 이유를 ‘머리’로 깨닫기 전까지는 행동에 변화를 보이지 않으므로 아들들을 혼낼 때에는 “도대체 너는 왜 그러니?” 식으로 감정적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논리에 맞춰 “왜 이걸 잘못했는지, 앞으로 어떻게 해줬으면 좋겠는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야 됩니다.

이 때도 큰 소리가 아닌 작은 소리로 속삭이며 타일러야 합니다. 그렇다고 조목조목 따지며 말하는 것은 피로감만 증폭시키므로 가급적 짧고 굵게 끝내는 것이 좋습니다.

아들들은 살갑게 애교를 피우는 일이 별로 없기 때문에 부모들도 안아주거나 스킨십을 잘 안 하게 됩니다. 만약 아이가 스킨십을 요구해도 “다 커서 징그럽게 왜그래~” 하며 엄마가 밀어내는 경우도 있죠. 그러다 보면 아이들이 커갈수록 함께 있는 것이 ‘어색한’ 사이가 되기 때문에 일부러라도 많이 안아주고, 웃어주고, 뽀뽀해주면서 아들들의 숨겨진 감성과 표현력을 풍부하게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평소 부부가 자연스럽게 스킨십을 나누고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MC)

**그렇다면, 시샘과 질투심이 많은 자매들은 어떻게 키워야 할까요?**

(이수연)

자매들은 둘이 앉아 조근조근 얘기 하며 인형 놀이를 하거나 그림을 그리는 등 조용히 잘 놀기 때문에 남자 형제를 키우는 엄마들이나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키우기가 쉬워 보이지만 하지만 딸들은 시샘과 질투가 심해 엄마들이 많이 정신적으로 피곤해하기도 합니다. 보통 언니는 동생을 잘 보살피지만 항상 자신이 동생보다 우월하다는 것을 확인하고 싶어하고 동생은 언니를 닮고 싶어 하지만 언니보다 더 예뻐지려 하거나 눈에 띄고 싶어하죠.

특히 자매들은 부모를 비롯해 주변 사람들에게 사랑을 독차지 하려고 경쟁적으로 애교를 부리는 경향이 있는데 만약 동생이 언니보다 더욱더 많은 관심을 받는다면 자매 사이는 급격이 나빠집니다. 또 자매들은 엄마 아빠를 자기 편으로 만들기 위해 서로 고자질하거나 헐뜯을 하기도 합니다. 이럴 때는 한 아이의 말만 듣고 다른 아이를 혼낼 것이 아니라 고자질이나 헐뜯이 잘못된 행동임을 먼저 알려주고 다음부터는 그러한 행동을 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매를 키울 때 가장 주의해야 할 것은 언니에게는 ‘보살핌’을 동생에게는 ‘양보’를 강요하지 않는 것입니다. 엄마들은 큰 딸에 대한 기대치가 높고 자신과 동일시 하려는 경향이 있어서 동생도 세심하게 잘 보살피길 바랄 뿐 더러 동생의 실수도 너그럽게 이해해주길 바랍니다. 하지만 엄마의 지나친 기대는 아이의 스트레스로 이어질 확률이 높기 때문에 언니라고 해서 무조건 책임감이 강해야 되고 동생을 잘 챙겨줘야 함을 강요해서는 안 됩니다. 동생에게는 언니에 대한 양보를 강요하면서 항상 언니 다음이라는 피해의식을 주지 않아야 합니다. 자칫 부모의 이러한 행동은 언니를 닮고 싶으면서도 언니의 모든 것을 빼앗고 싶은 동생의 심리를 나쁜 쪽으로 극대화시킬 수 있습니다.

특히 예쁜 것에 민감한 자매들에게 언니에게는 새 옷과 새 구두, 새 머리핀 등 새 것을 사주고 동생에게는 언니 것을 물려받게 하는 것은 상처를 줄 수 있습니다. 물론 물려 입어야 되는 것은 물려 입더라도 동생에게도 머리 핀이나 액세서리 등 ‘내 물건’이라는 소유 의식이 생길 수 있도록 배려하는 것이 좋습니다.

(MC)

**딸 둘을 키우는 친구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아들은 몸이 힘들고 딸은 머리가 아프다구요 그건 왜 그럴까요?**

(이수연)

딸들은 엄마와 같은 성별이기 때문에 서로 이해하는 면이 많으면서도 딸들의 예민한 감성 때문에 감정 표현이 서툴거나 눈치 빠르게 아이들의 감정을 읽어주지 못하는 엄마들은 오히려 더 힘들어할 수 있습니다. 특히 워킹맘들에게는 엄마의 세심한 손길과 관심을 바라는 딸들의 요구가 부담스럽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딸들은 엄마의 감정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까지는 좋으나 엄마가 화를 내거나 짜증을 내면 아들들과는 달리 ‘나’를 미워해서 그런 가보다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마음에 큰 상처를 받거나 자신감을 상실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딸들은 감정을 읽어주고 존재 자체를 인정해주는 말을 많이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MC)

예를 들면 어떤 말들이 있을까요?

(이수연)

“네가 있어서 엄마는 너무나 행복해” 라든가 “역시 우리 딸들은 너무 사랑스러워” 등의 표현이면 사랑 받고 있다고 느끼기 때문에 매우 흡족해 합니다.

(MC)

마지막으로 딸 키우는 부모들에게 한 마디 해주고 싶은 말이 있으신지요

(이수연)

딸만 키우다 보면 무의식 중에 “너는 여자가 되가지고 왜 그러니?”“어허~ 계집애가 어디 서..” 식으로 ‘딸은 얌전해야 되고, 다소곳해야 된다’ 라는 잘못된 선입견을 심어줄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딸들은 피해 의식을 가지게 되고 매사에 자신감이 떨어질 수 있으므로 평소 ‘여자라고 해서 못하는 것은 없다!’ 라는 자신감을 심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워낙 세상이 험하다 보니 자신의 몸은 스스로 지킬 수 있도록 운동을 시키거나 일상에서 안 좋은 일을 당하지 않도록 생활 지도에 신경을 쓰는 것이 좋습니다.

(MC)

지금까지 형제와 자매 키우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그럼 마지막으로 남매는 어떻게 키우는 것이 좋을까요?

(이수연)

남매의 경우 큰 아이의 성별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양육법이 달라집니다.

즉 오빠와 여동생인지, 누나와 남동생인지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죠.

첫째가 남자아이고 둘째가 여자아이인 경우에는 오빠는 동생에 대해 신체적으로 우월감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은연중 복종을 바랍니다. 만약 동생이 이에 상응하지 않거나 나보다 동생이 주변 사람들에게 더 인정받고 있다고 느껴지면 자신의 강점인 신체적 완력으로 공격을 하기도 하지요. 여동생들은 힘으로 오빠를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일찌감치 깨닫고 약을 올리거나 말대꾸를 하는 식으로 공격을 해 싸움이 나기도 합니다. 그러다 불리해지면 울음을 터뜨리거나 거짓 연기를 해서 아빠, 엄마를 편으로 끌어들이기도 하지요.

사실 제가 어릴 때 좀 이랬던 것 같습니다.

반면 많은 엄마들이 부러워하는 첫째가 여자아이이고 둘째가 남자아이인 경우인데 보통 누나들은 남동생을 살뜰히 잘 챙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남동생은 잘 챙겨주는 누나에게 의존하다가 덩치가 커지기 시작하면서부터는 누나를 힘이 약한 존재로 인식해 때리거나 공격하기도 하지요.

(MC)

**저도 밑에 남동생이 있는데 어릴 때 많이 싸웠거든요.**

(이수연)

네 아마도 동생이 커가면서 싸움의 횟수는 부쩍늘었을 겁니다.

남매를 키울 때 가장 주의해야 할 것은 바로 남녀 성차별을 하지 않는 것인데요. 아이들에게 ‘차별’이 아닌 성별의 ‘차이’를 알려줘야 합니다.

첫째가 남자아이이고 둘째가 여자아이인 경우에는 오빠의 폭력을 조심해야 합니다. 오빠가 신체적으로 자주 공격을 하면 여동생은 오빠에 대해 두려움을 갖게 되고 심할 경우에는 남자에 대한 혐오감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여동생도 말대꾸를 하거나 오빠를 자극해 화나게 한다면 똑같이 벌을 주고 오빠에게 그러는 것은 나쁜 행동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 좋습니다.

남매가 싸웠을 때 정황을 파악하지 않고 때린 오빠만 혼을 낼 경우, 오빠는 분한 마음에 엄마 아빠가 보지 않을 때 여동생을 더 자주 때릴 수 있으므로 절대 동생의 말만 듣고 오빠를 혼내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특히 오빠가 위인 남매를 키울 때는 남자와 여자는 발달 속도가 다르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대체적으로 여자아이들이 언어 표현능력이나, 감성, 사회성 등이 빠르게 발달하기 때문에 동생에 비해 오빠가 뒤처지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동생은 저런 것도 하는데 너는 오빠가 되가지고 왜 못하니?” 라고 하거나 “동생 봐라~” 라고 비교를 할 수 있는데 이러한 말은 오빠를 더욱더 위축시켜 “난 못해!” “역시 나는 부족해” 하며 자신을 평가절하 시키는 결과를 낼 수 있으므로 주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MC)

**그렇다면 첫째가 여자아이이고 둘째가 남자아이인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수연)

누나가 억울해 하지 않도록 ‘성차별’을 특히 조심해야 합니다. 흔히 남동생을 더 귀하게 여기는 집이 있는데 이럴 경우 누나는 피해 의식과 분노를 느끼게 되어 어떠한 방법으로도 동생을 통제하려는 과도한 지배 욕구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사건건 간섭을 하거나 심부름 등을 시켜 자신이 우위에 있다는 것을 보이려 하죠. 그러므로 아들이라고 해서

더 편애를 하는 행동은 자제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아들만 귀하게 여길 경우 누나를 업긴 여겨 폭력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평등하게 대하되 형제, 자매와 달리 남동생에게는 누나와의 서열을 강조해 절대 누나를 함부로 대하지 못하도록 해야 합니다.

(MC)

부모는 그냥 되는 것이 아니네요.

이래서 공부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살펴본 외동아이와 형제, 자매, 남매 키우는 방법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외동아이는 독립심을 키울 수 있는 기회를 많이 만들어주세요!

두 번째, 형제는 위계질서를 만들어주되, 양보와 복종을 강요하지 마세요!

세 번째, 자매는 감정을 이해하고, 세심한 손길을 보내주세요!

마지막으로 남매는 차별이 아닌 성별의 차이를 알려주세요!

지금까지 한국워킹맘연구소 이수연 소장님과 함께 했습니다.

소장님~ 감사합니다.